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보광산업(225530)

소재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지민 선임연구원
------	-------------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산업(225530)

고품질의 골재, 아스콘, 레미콘을 생산, 대구 전역에 공급

기업정보(2020/07/31 기준)

대표자	김윤수
설립일자	2004년 08월 27일
상장일자	2015년 12월 1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토사석 골재 채취업,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 판매업
주요제품	골재, 아스콘, 레미콘

시세정보(2020/09/21 기준)

현재가(원)	6,4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333
발행주식수	36,338,727
52주 최고가(원)	8,720
52주 최저가(원)	3,080
외국인지분율	0.46%
주요주주	(주)홈센타홀딩스

■ 지역 내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골재,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체

보광산업은 건설 산업의 필수 재료인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도로포장공사용 혼합골재와 아스콘,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로, 2004년 설립되었다. 체계적인 공정을 거쳐 입형이 개선되고 세척이 완료된 고품질의 부순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생산하며, 자체 생산한 골재를 바탕으로 아스콘과 레미콘을 제조하여 대구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폐아스콘으로부터 순환골재를 생산, 순환 아스콘을 제조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보광산업이 소속된 홈센타홀딩스는 그룹 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내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 친환경 시설을 구축한 대규모 채석 단지 보유

골재 채취는 허가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인공 골재는 천연 골재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광산업은 경북 군위군에 대규모의 채석단지(석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계별 채석단지 확대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다. 비산먼지와 분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형 박스를 설치하여 실내에서 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진 설비와 세륜·세차 시설, 방진덮개 등을 통해 환경 오염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수주 확대 기대

보광산업은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국내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골재 수요는 소폭 증가, 아스콘 및 레미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되며, 광역교통망 구축 및 도시 개발을 위한 건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내 첨단섬유소재연구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도시철도 등 다수의 건설사업 예정되어 있어,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420.4	(11.9)	92.7	22.1	91.2	21.7	16.1	10.2	54.5	265	1,698	22.8	3.6
2018	373.4	(11.2)	47.5	12.7	45.7	12.2	7.9	5.0	60.5	132	1,668	30.1	2.4
2019	497.7	33.3	74.3	14.9	62.6	12.6	10.0	6.5	48.5	175	1,850	29.1	2.8



기업경쟁력

대규모 석산 보유

- 경북 군위군에 축구장 60개(430,854m²)에 해당하는 대규모 석산 보유
- 매장량이 풍부하여 반영구적 사업 영위 가능

입지상의 강점 보유

- 석산 반경 30km 내 대구와 중소도시들이 위치
- 아스콘, 레미콘 사업장이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 대구 전역 및 일부 경북 지역에 제품 신속 공급

핵심기술

환경 오염 방지 설비 구축

- 석산 비산먼지의 발생과 확산 방지 시설 설치
 - 공장형 박스 및 컨베이어벨트 덮개, 분진망, 분진 집진 설비, 세륜 및 세차시설
- 수질 오염 저감 시설 설치
 - 침수로 및 배수로, 출입로 교량 설치로 토사 유출 방지

생산능력 및 생산 인프라

- 뛰어난 생산능력
 - 골재 연간 최대 생산량 2,073,052m³
 - 아스콘 연간 최대 생산량 320,000ton
 - 레미콘 연간 최대 생산량 1,820,000m³
- 최신식 설비 및 체계화된 생산 공정
- ISO 9001, KS, GR 인증 취득

시장경쟁력

국내 건설경기 하락세 지속

- 지방자치단체 SOC 부족과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로부터 기인
- 2020년 건설자재 수요 대체로 감소 전망
 - 아스콘 수요 -2.8%, 레미콘 출하 -4.1%

대구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전망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최종 확정
 - 광역 교통망 구축 및 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 가속화 전망
- 첨단섬유소재연구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대구도시철도 등 지역 내 다수의 건설사업 예정

최근 변동사항

2019년 & 2020년 반기 실적 양호

- 2019년 매출 전년대비 33.3% 증가
- 2020년 반기 매출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

대규모 시설 투자 실시

- 2018년에 이어 2019-2020년 107.5억 원 투자
-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제품경쟁력 제고

I.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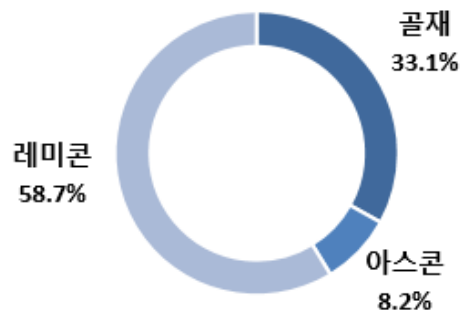
골재, 레미콘, 아스콘을 제조하여 대구 전역에 공급하는 보광산업

보광산업은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도로포장공사용 혼합골재와 레미콘 및 아스콘을 생산하며, 지역 내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 개요

보광산업(이하 동사)은 2004년 법인 설립 후,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도로포장공사용 혼합골재의 생산과 레미콘 및 아스콘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골재 33.1%, 아스콘 8.2%, 레미콘 58.7% 수준이다[그림 1]. 본사(레미콘 사업부)는 대구 북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골재 사업부는 경북 군위군에, 아스콘 사업부는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다[그림 2].

그림 1. 사업부별 매출 비중(2019년 기준)



*출처: 2019년 사업보고서, NICE평가정보 재가공

그림 2. 사업장 현황

	본사(레미콘 사업부)	골재 사업부	아스콘 사업부
			
소재지	대구 북구 유통단지3길 40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산 13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37
생산품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부순굵은골재, 콘크리트용 부순잔골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49,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GR F 4005
면적	대지 12,053㎡, 건물 1,339.7㎡	430.854㎡	대지 8,494㎡, 건물 1,323㎡
설립일자	2015년 3월 2일	2004년 8월 27일	2005년 1월 20일

*출처: 보광산업,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

동사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이면서 코스닥상장법인인 홈센타홀딩스로 39.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5% 이상 주주는 홈센타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박병준(7.58%)이 있다[표 1]. 홈센타홀딩스 그룹은 레미콘, 아스콘, 석재 및 토사석 채취, 유류 도소매, 레저 스포츠, 건축자재도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 외 에이치씨보광레미콘, 에이치씨대동산업, 홈센타, 에이치씨보광알엠피, 에이치씨대하에너지 등이 소속되어 있다.

표 1. 주요 주주 현황

주요주주	관계	지분율(%)
홈센타홀딩스	최대주주	39.30
박병준	특수관계인	7.58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ICE평가정보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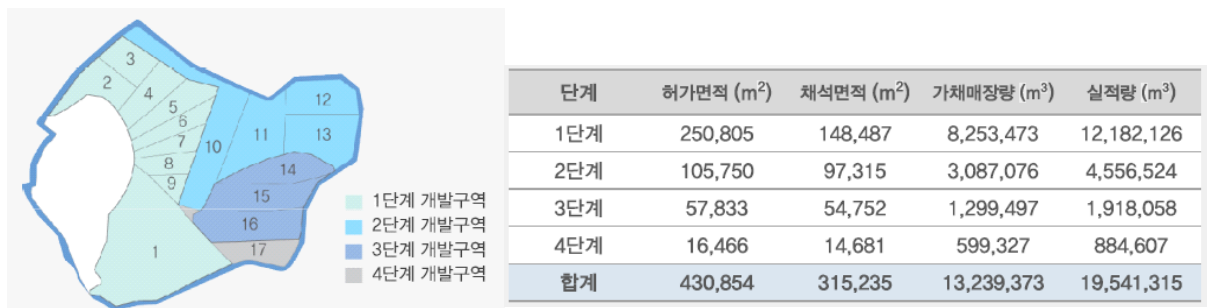
■ 대표이사 정보

김운수 대표이사는 2017년 8월부터 동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화학공학 전공자로, 골재 및 아스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홈센타홀딩스 계열의 에이치씨부광산업에서 근무하였다.

■ 골재 사업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군위 석산은 2012년 1월에 채석단지로 지정되었다. 축구장 60개에 해당하는 430,854㎡ 규모로, 연간 최대 2,073,052㎡의 콘크리트용 부순골재의 생산이 가능하다. 채석단지 내 1~4단계 개발구역 중 현재 2단계 개발구역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그림 3]. 동사는 기존 석산의 단계별 채석단지 확대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반경 30km 내 대구광역시와 중소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어 입지 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4년 3월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대하여 KS 인증을 취득하였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여 환경부장관 우수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림 3. 채석단지 확대 계획



*출처: 보광산업, NICE평가정보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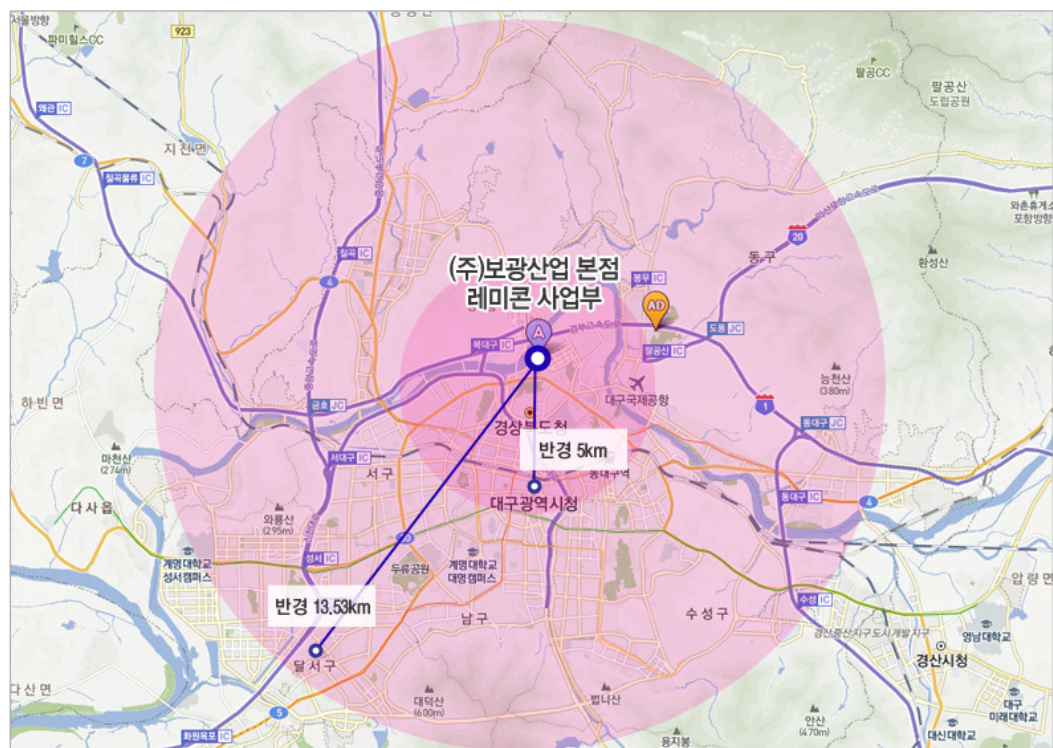
■ 아스콘 사업

2005년에 운영을 개시한 아스콘 사업부는 아스콘과 순환 아스콘(재활용 아스콘)을 생산하여 관공서와 주요 건설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생산량은 320,000ton이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KS 인증 및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에 대한 GR 인증을 취득하였다. GR 인증은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여하는 인증이다.

■ 레미콘 사업

동사는 2015년 3월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여 레미콘 사업에 진출하였다. 배치플랜트 수리 등에 약 6.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 5월 공장 가동을 개시하였다. 연간 최대 생산량은 1,820,000m³이며, 사업장 내 총 2,150ton 용량의 시멘트 사이로를 비롯하여 콘크리트 믹서, 믹서 트럭, 페레미콘 재생시설, 골재 야적장 등을 확보하고 있다. 자체 생산하는 골재를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하여 대구·경북 지역 내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레미콘 사업장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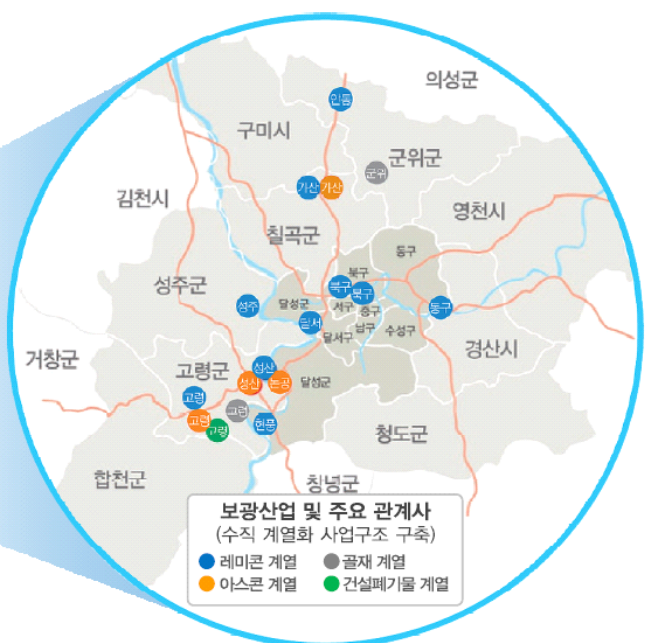


*출처: 보광산업,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수직 계열화 사업 구조

홈센타홀딩스 그룹은 대구·경북 지역 내 레미콘,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계열사 및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광산업의 골재 사업부에서 생산된 골재 중 약 90%는 레미콘 사업부와 아스콘 사업부를 비롯한 홈센타홀딩스 그룹 내 계열사 및 관계사에 공급된다. 홈센타홀딩스는 그룹 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근거리 공급체계를 구축, 수송 비용을 절감하여 대구·경북 지역 내 레미콘, 아스콘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수직계열화된 사업구조와 근거리 공급체계 구축



*출처: 보광산업, NICE평가정보 재가공

II. 시장동향

건설경기 하락세와 더불어 건설자재 수요 대체로 감소 전망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골재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 아스콘 및 레미콘 수요는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골재 산업

▶▶ 산업 특징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골재는 하천, 산림 바다(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골재는 주로 레미콘, 건축 기초, 아스콘, 일반 콘크리트 제조업에서 소비된다. 콘크리트에서 약 70%, 아스콘에서 약 90%의 용적비를 점유하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건설공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건설산업의 원자재로서 용도가 제한되어 독립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건설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골재는 단가 대비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로 수송이 용이하지 않은바, 원거리 수송 시 운반비 등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 수요와 공급이 동일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성을 가진다. 이에 대부분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수요도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내수중심적 산업이다.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쇄석설비(쇄석기, 선별기, 동력설비)와 로우더, 굴삭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나, 채취와 품질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용이한바, 중소규모 기업들이 난립해 있다. 골재 업계는 골재원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골재 채취가 완료되거나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골재원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시설투자를 비롯한 환경이나 안전, 재해 등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고, 안정적인 경영 산업이 잘 이루어지기 힘들어 영세한 편이다.

▶▶ 허가 및 규제

골재채취업은 허가 산업으로 허가 여부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기도 한다. 허가를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이 등록기준(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통과해야 하는데, 허가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채취 허가에 최소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골재원의 확보도 쉽지 않아 골재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낮다.

골재는 부존 지역이 제한적이고 천연자재이므로 대체재가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폐콘크리트(연간 1,200만 m³ 규모)에서 생산하여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골재는 자갈 580 m³, 모래 190만 m³ 수준에 불과하여 양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골재 공급량은 수급계획을 발표하는 정부에 의해 좌우되며, 채취를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물량은 북한산 모래와 부순모래 등으로 충족한다.



모래, 자갈 등의 천연골재는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어 대체 자원의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골재 채취는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골재채취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그 영위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업증을 등록하여야 한다.

▶▶ 골재의 분류

골재는 생산방법에 따라 천연골재와 인공골재로 구분된다. 천연골재는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연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골재로서 강모래, 강자갈, 바다모래(해사), 바다자갈, 육상모래, 육상자갈, 산모래, 산자갈 등이 있다. 인공골재는 암석을 파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쇄석골재와 혈암, 점토, 석탄재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인공경량골재,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산업부산물인 각종 철강슬래그 등이 포함된다.

천연골재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천연골재만으로는 골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인공골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 수급 실적 및 전망

대한건설협회의 2020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2020)에 의하면, 2019년 골재 수요는 229,963천 m³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를 바탕으로 산정한 2020년 골재 수요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34,773천 m³로 예상된다. 2020년도 공급계획량은 247,118천 m³이며, 지역별 자체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인근 지역 반출입을 통해 광역권 단위로 공급할 계획이다. 골재원별로는 하천 3,270천 m³ (1.3%), 바다 19,400천 m³ (7.9%), 산립 102,573천 m³ (41.5%), 육상 13,908천 m³ (5.6%), 선별파쇄, 순환골재 등이 107,967천 m³ (43.7%)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표 2].

표 2. 골재 수급 실적 및 전망 (단위: 천 m³)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전망)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대비)
수요	231,770	110,382	119,581	229,963	-0.8%	112,691	122,082	234,773	2.1%
공급	251,490	121,387	131,502	252,889	0.6%	118,617	128,501	247,118	-2.3%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2020),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아스콘 산업

▶▶ 산업 특징

아스콘은 제품 생산 후 트럭 등의 운송수단으로 일정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가 영업권으로 국한된다. 한시적, 무재고의 제품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주문 후 아스콘을 생산 및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이며 일반 제조업에 비하여 가동률이 저조한 편이다. 운송수단으로 제한 시간 내에 건설현장에 운송하므로 제조업과 운송업의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송능력과 수송원가가 중요하며, 계절형 산업으로 수요처인 건설산업 경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건설 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아스콘 산업은 공공시설인 도로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도로교통의 원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 필수산업이다. 전방산업에 속한 건설업체들과의 교섭력이 약한 편이며, 운반비 등의 수송원가 상승이 수익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순환 아스콘 활용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기반시설의 보완 및 변경이 요구되며, 생산된 제품을 제한 시간 내에 건설현장에 운송해야 하는 특성상 거점 설립을 통한 공급권역 확대가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 수급 실적 및 전망

대한건설협회의 2020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에 의하면, 2019년 아스콘 수요(관급)는 대형 공사는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유지보수 물량 비중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유사한 18,000천 ton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부족으로 신설 계획 수립은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 수요는 전년대비 약 2.78% 감소한 17,500천 ton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표 3].

표 3. 아스콘 수급 실적 및 전망 (단위: 천 ton)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전망)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대비)
수요	18,000	9,000	9,000	18,000	-	8,500	9,000	17,500	-2.78%
공급	18,000	9,000	9,000	18,000	-	8,500	9,000	17,500	-2.78%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2020), NICE평가정보 재가공

■ 레미콘 산업

▶▶ 산업 특징

레미콘 산업은 배치플랜트와 골재 야적장 그리고 몇 대의 믹서트럭만 갖추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업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사업을 거두거나 타사에 매각하기도 쉬워 신규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운송 시간의 제약을 받는 제품 특성상 주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이며,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가동률이 저조하고 수요에 대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레미콘 산업은 건설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 가을에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 수요가 급락하는 등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을 가진다.

레미콘은 토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초 교착자재로서 제품 생산 이후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본 제품의 시장 권역을 형성하므로 지역형 산업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제품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며, 건설공사의 발주가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도심에서 발생하므로 도시권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도시집중형 산업이다.

레미콘 제품은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 제조공정을 거친 후 레미콘 트럭으로 제한 시간 내에 건설현장에 운송하므로 제조업과 운송업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통상 원가 중에서 운송비용이 10-15%를 차지하므로 수송능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성수기에 운송능력의 한계로 인해 적기 공급의 문제가 상시 제기된다. 또한, 레미콘 믹서 트럭이 공장 건설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소유 운영에 따른 자금소요가 많으며, 도시권의 교통 환경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수송능력이 낮아지고 물적 유통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수급 실적 및 전망

대한건설협회의 2020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에 의하면, 2019년 레미콘 출하량은 건설경기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 감소한 145,000천 m³에 그쳤다(잠정치).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레미콘 출하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0년 출하량은 전년대비 4.1% 감소한 139,000천 m³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4].

표 4. 레미콘 수급 실적 및 전망

구분	2018년	2019년(잠정치)				2020년(전망)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대비)
출하량	155,700	72,900	72,100	145,000	-6.9%	68,500	70,500	139,000	-4.1%

(단위: 천 m³)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2020), NICE평가정보 재가공

Ⅲ. 기술분석

우수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골재, 아스콘, 레미콘을 생산

보광산업은 최신식 설비와 체계화된 공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석산에서 생산한 골재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아스콘, 레미콘을 생산한다.

■ 부순골재 생산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는 천연 상태의 암석을 기계적으로 분쇄, 체가름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공장제품으로 생산된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잔골재를 말한다. 입경에 따라 굵은골재와 잔골재로 구분되며, 골재의 모양과 입도 분포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사는 생산 공정에서 원심력에 의해 골재의 입형을 개선하여 편석을 제거하고 입도를 개선한다. 강력한 살수 및 진동으로 이물질을 세척하고, 입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콘크리트용 부순골재가 생산된다[그림 6].

그림 6. 골재 제조 공정



*출처: 보광산업



■ 골재 생산 설비

동사는 군위 석산에 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였다. 골재의 파쇄와 선별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형 박스와 컨베이어벨트 덮개, 분진망 및 분진 집진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세륜 및 세차시설로 골재 출하차량에 부착된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차량 통행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였다. 골재 적치장에는 비산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였다. 공장형 박스는 오염 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채석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와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침사지와 배수로를 설치, 우수의 유입과 토사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였으며, 출입로에 교량을 설치하여 차량 이동에 의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친환경 설비 설치 현황



공장형 박스 및 컨베이어벨트 덮개



분진망



세륜·세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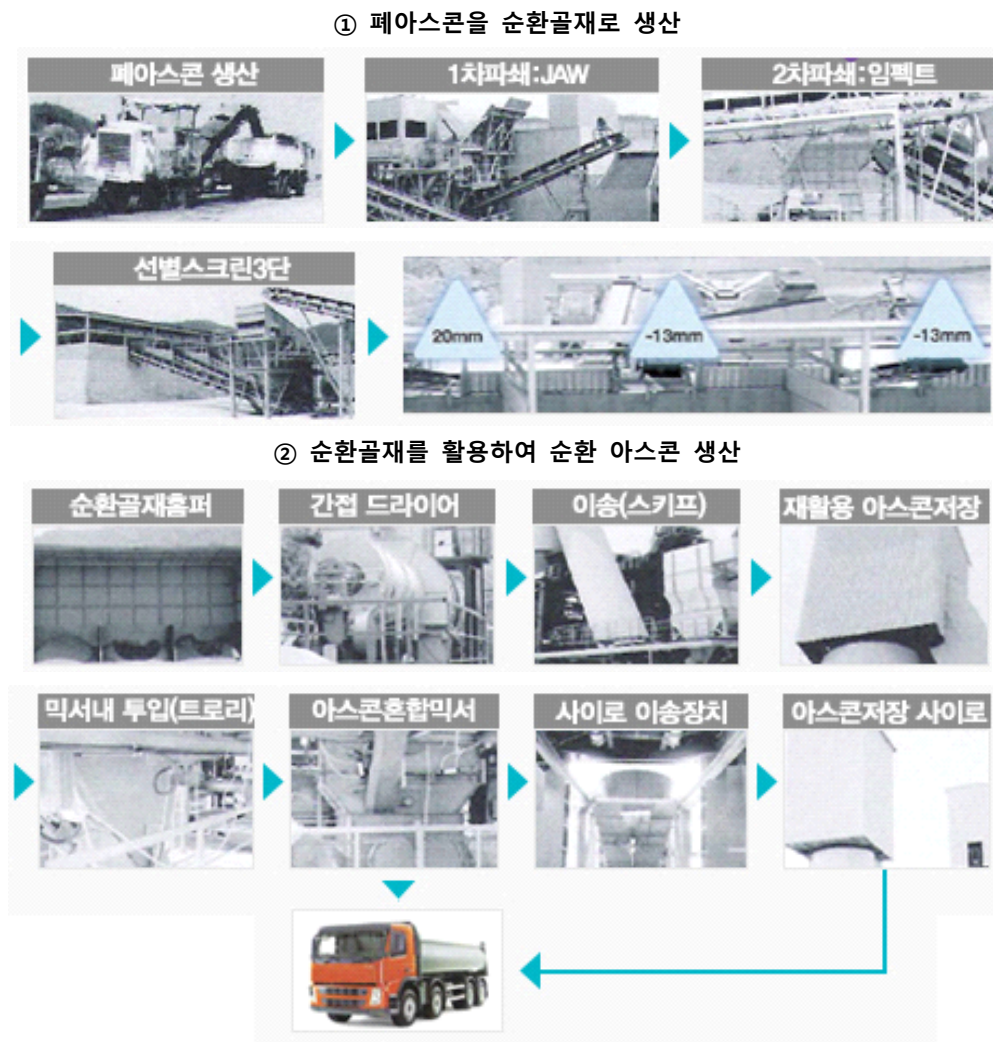
방진덮개

*출처: 보광산업,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순환 아스콘 생산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Asphalt Concrete)'의 약칭으로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아스팔트 피치로 결합시킨 건설자재를 말하며, 차도 포장, 보도 포장, 공항 활주로 포장, 주차장 포장, 터널 포장, 교면 포장, 공원 포장, 운동장 포장 등에 주로 사용된다. 순환 아스콘은 도로의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파쇄·선별하여 제조되는 순환골재를 신규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첨가제와 혼합하여 제조하며, 일반적으로 25% 이상의 순환골재를 사용한 아스콘을 일컫는다. 순환 아스콘은 신규골재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다. 동사는 2005년부터 고품질의 아스콘 및 순환 아스콘을 생산하여 대구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그림 8].

그림 8. 순환 아스콘 제조 공정



■ 레미콘 제조

레미콘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의 약칭으로,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물, 혼화제의 재료를 이용하여 KS F 4009에 규정된 제조방법, 품질검사 등에 준하여 제조한 후, 트럭믹서 또는 에지타이터 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굳어지지 않은 유연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레미콘은 종류에 따라 골재 치수, 강도 등이 달라지며,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로 분류된다. 레미콘은 각 제품별로 조골재(콘크리트 재료로 사용되는 모래, 자갈), 최대 치수, 호칭 강도(콘크리트를 표준양생조건($23\pm 2^{\circ}\text{C}$)에서 28일간 양생한 후 파괴하여 측정한 압축강도), 슬럼프(반죽의 질기) 등에 따라 100개 이상의 생산 규격이 존재하는 다품종의 제품이다. 자갈의 종류에 따라 19mm는 도로·대교용, 25mm는 주택용, 40mm는 바닥 포장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25mm 규격이 80% 이상 차지한다. 레미콘은 콘크리트 전용 배합 공장에서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계로 자동화하여 배합하므로, 현장에서 인력 등으로 배합할 때보다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제조 공정은 시멘트 및 골재 저장 - 원재료 이송 설비 - 골재 혼합 - 제품 출하로 이루어진다. 혼합을 위한 원료인 시멘트와 골재는 저장빈(밀폐형)에 저장되며, 각각의 저장빈에 저장된 골재, 시멘트 등은 컨베이어 벨트 및 이송관을 통해 계량 및 혼합시설로 투입된다. 핵심 공정인 골재 혼합 공정에서는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이 적정 혼합되어 최종 레미콘으로 생산되며, 입도, 비중, 흡수율 등을 정밀 테스트한 후 최종 출하하여 건설현장에 공급된다. 동사는 자체 생산한 입형이 개선된 골재를 사용하여 강도, 내구성, 수밀성, 작업성 등 품질이 우수한 레미콘을 생산한 후 대구 전역에 신속하게 납품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레미콘 제조 공정



*출처: 보광산업



■ 석분슬러지 활용 초유동 콘크리트 제조 기술

동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중소기업청의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습식 석분슬러지를 이용한 일반강도용 초유동 콘크리트 제조기술 개발’ 과제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연간 250만 ton 이상 생산되는 석분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큰 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건조 및 분쇄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존재하나, 비용과 시간 등에 따른 경제성이 낮은 수준이다. 동사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건조 및 분쇄 과정 없이 습식 석분슬러지를 이용하여 초유동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석분슬러지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포함되어 시멘트, 플라이 애시 등 콘크리트 조성물 사이의 결합력을 낮추기 때문에 유동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석분슬러지가 0-30 중량% 포함되어 유동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고 강도 조절이 가능하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일반강도용 초유동 콘크리트 조성물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과정에서 석분슬러지 자체의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해 석분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양 또는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함수비 측정방법 또한 특허로 등록하였다. 해당 기술을 통해 동사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분슬러지를 제품 생산에 재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 SWOT 분석

그림 10.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

▶▶ (Strengths) 입지상 강점, 석산 매장량 풍부

아스콘, 레미콘은 제품 생산 후 일정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영업권으로 한정되는데, 동사의 아스콘 사업장과 레미콘 사업장은 대구 전역에 제품을 공급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군위 석산은 매장량이 풍부하며, 단계별 채석단지 확대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 (Weaknesses) 설비 유지 및 믹서트럭 운영 비용

동사는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송을 위한 믹서트럭은 고가이기 때문에, 소유 운영에 따른 자금소요가 많다.

▶▶ (Opportunities)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확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향후 다년간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 (Threats)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SOC 부족과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2020년의 아스콘, 레미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사의 사업은 건설경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동사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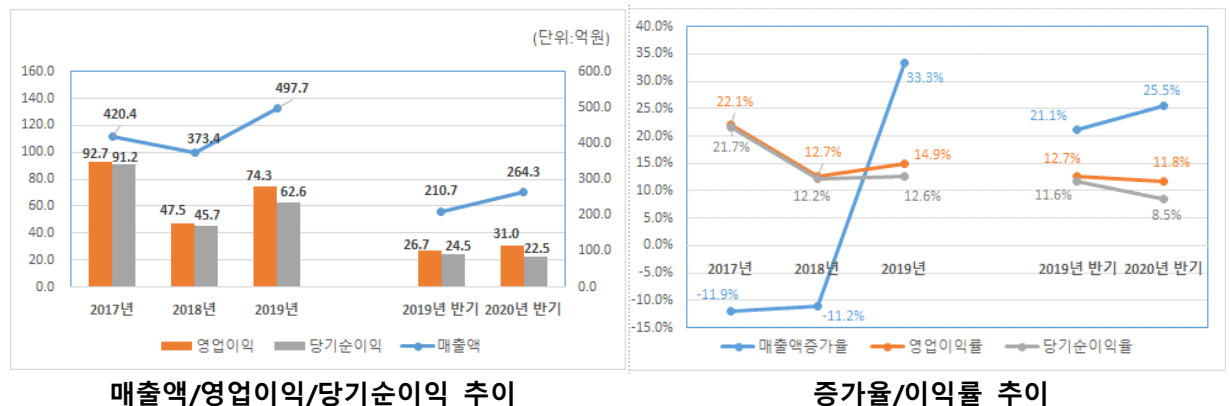
대구 경북지역 최대의 골재 생산업체로 최근 매출 성장세

동사는 경북 군위군 소재에 대규모 채석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대구 소재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면서 골재 채취부터 레미콘 제조까지 수직계열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최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 2019년 레미콘 사업부 매출비중이 50% 이상으로 매출 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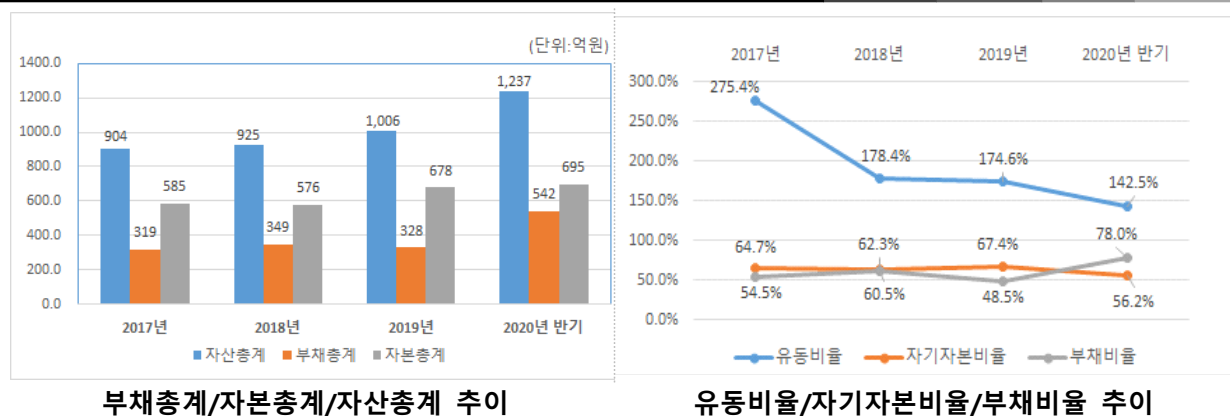
동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석산에서 생산한 골재를 바탕으로 아스콘,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골재사업부 매출이 164.8억원(총매출의 33.1%), 아스콘사업부 40.8억원(총매출의 8.2%), 레미콘사업부 292.0억원(총매출의 58.6%)이 발생되고 있다.

그림 11.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그림 12.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 아파트 건설, SOC 사업 확대에 따라 2019년 매출 증가

동사는 내수매출 100%로 2019년은 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아파트 건설 증가와 SOC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33.3% 증가한 497.7억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사업부별로 보면 골재 사업부가 전년대비 8.2% 증가하였고, 아스콘 사업부는 전년대비 17.9% 감소, 레미콘 사업부는 전년대비 70.5% 증가하였다.

주로 광역권별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은 2018년 평창올림픽과 같은 대형 수주 물량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은 매출 증가로 인해 인건비, 수수료비용 등의 판관비가 증가하였으나 자체 석산에서 생산한 원자재 투입으로 매출원가 부담은 완화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14.9%(전년 12.7%), 매출액순이익률 12.6%(전년 12.2%)로 전년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어 양호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2020년 상반기 매출 증가 및 양호한 수익성 유지

2020년 상반기는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민간 주택 수주가 발생되고 공공 비주택 공사 부문이 양호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한 264.3억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매출원가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인건비 증가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11.8%(전년동기 12.7%), 매출액순이익률 8.5%(전년동기 11.6%)로 전년동기대비 수익성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업계대비 양호한 수익성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아스콘 사업부문은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손실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아스콘 관급계약제도가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변경됨에 따른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기존의 손실을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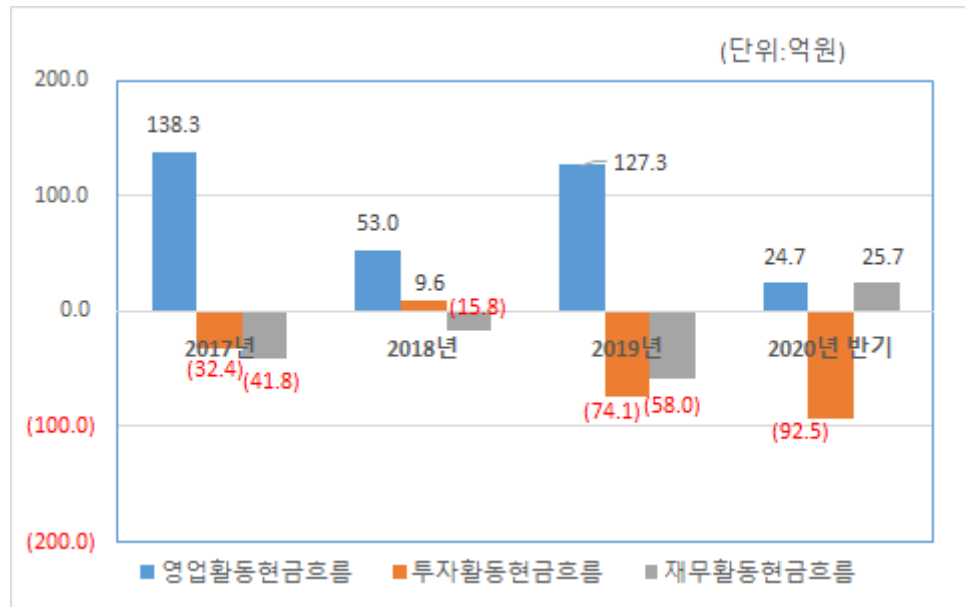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0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 78.0%, 자기자본비율 56.2%, 유동비율 142.5%, 차입금의존도 21.6%로 생산설비 투자로 인한 사채,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영업활동을 통한 대규모 현금 유입으로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유출 감당 가능한 상태

2019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생산설비 투자, 리스회계 변경에 따른 증가된 감가상각비의 조정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년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영업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생산설비 투자활동과 차입금 상환, 배당금 지급 등의 재무활동 자금 유출을 감당 가능한바, 전반적인 자금흐름이 양호한 수준이다.



그림 13.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양호한 실적 지속, 지역 내 건설사업 활성화에 따른 수혜 기대

보광산업은 2019년 연간 실적 및 2020년 반기 실적이 양호하며, 대구·경북 지역 내 통합신공항을 비롯한 다수의 건설사업이 예정되어, 지속적인 사업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실적 양호

동사는 고속도로, 아파트 등 다수의 건설사업에 참여하여, 2019년 전년대비 33.3% 증가한 497.7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사업부별 매출액 증가율은 골재 사업부 8.2%, 아스콘 사업부 -17.9%, 레미콘 사업부 70.5% 수준으로 레미콘 사업부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20년 또한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한 264.3억 원으로, 골재, 아스콘, 레미콘 사업부가 고른 매출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대규모 시설 투자

동사는 2018년 생산시설 개선 및 증설을 위해 32.9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7.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제품경쟁력을 제고하며, 시장 내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으로 인한 수주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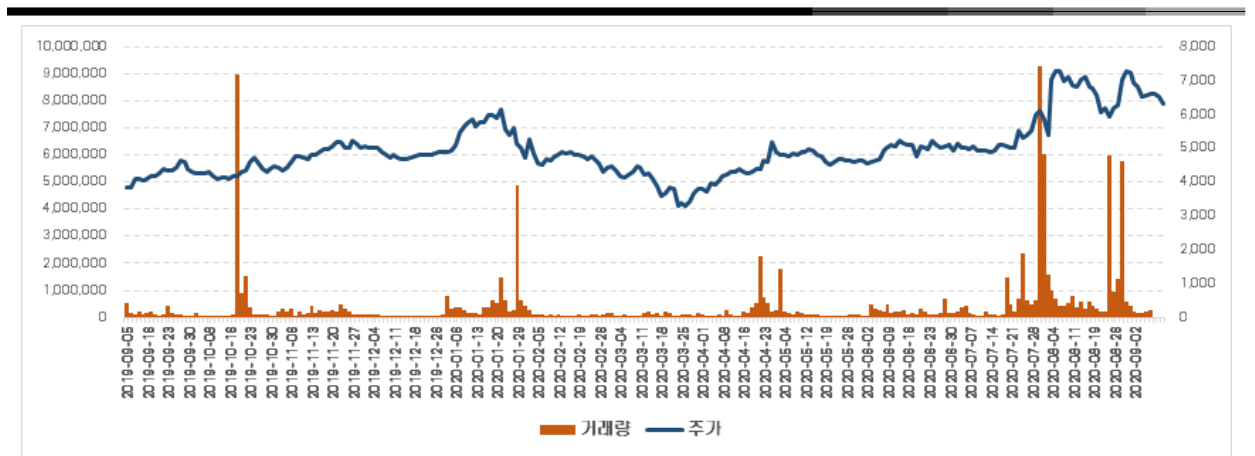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구·경북지역에 광역교통망 구축 및 신도시 조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첨단섬유소재연구센터 설립,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선도사업 추진, 창조경제트라이앵글 조성, 4차 순환선 완전개통, 대구 도시철도 3호선(혁신도시) 연장, 도시철도 엑스코연결선 구축,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등 지역 내 다수의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국내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동사가 속한 지역 내의 건설경기는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사의 사업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6개월 내 발간된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0.09.)